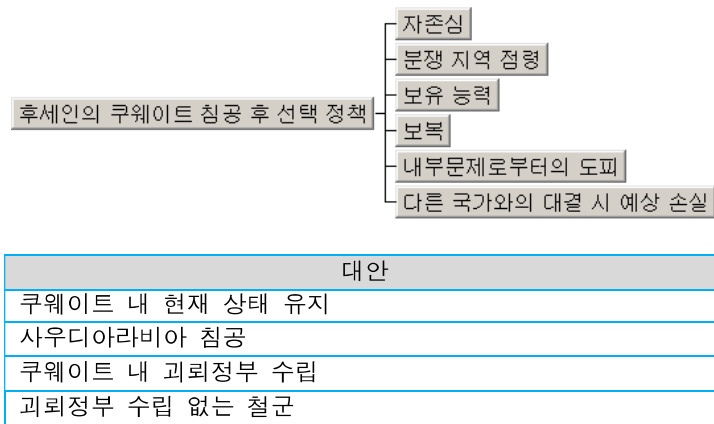


사담 후세인의 행보 예측

1 차 예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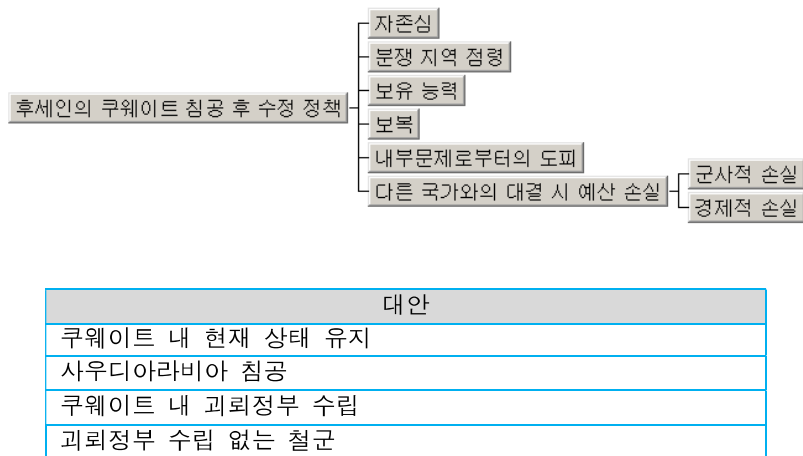
이 모델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일주일 후 한 전직 정보요원에 의해 만들어졌다. 사담 후세인이 취할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것은 커다란 관심사였다. 이 모델은 사담 후세인이 (1) 쿠웨이트내 현재의 상태 유지 (2) 사우디 아라비아 침공 (3) 괴뢰정부 수립 및 군대 철수 (4) 괴뢰정부의 수립 없는 철군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상대적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손실의 위험’이라는 목적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만일 ‘손실의 위험’이 보다 중요하게 된다면 사담 후세인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침공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이 모델의 분석 결과 ‘사우디 아라비아 침공’이 후세인의 취할 가장 가능성 높은 행동으로 도출되었다.



2 차 예상 모델

동 기간 중, 미국과 동맹국은 군대를 동 지역에 보내고 있었다. 이 모델은 연합군이 구성된 상황에 따라 수정되고 재평가되었다. 이 모델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손실의 위험’이라는 목적요인에 하부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이 모델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는 연합군의 구성이라는 상황에 의해 초래되었다.

이 모델은 가장 가능성 높은 후세인의 행동이 “우디 아라비아 침공”에서 ‘현 상태의 유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것은 바로 사담 후세인이 취한 정책과 일치한다.



이 자료는 <http://imakeit.kr/info> 에서 내려받은 자료입니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디시전사이언스의 문서에 의한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복제, 전재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합니다.